삼성 '中 지분 인수', LG '현지투자'… 공급망·생산기반 강화

韓中 디스플레이 협력 관계 지속
삼성, 中 CSOT 지분 1.27조 인수
LCD 패널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

LGD, 광저우 OLED 추가 투자
대형 OLED 생산기반 확충 속도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패널 업체의 지분을 확보해 액정표시장치(LCD) 공급망 강화에 나섰고, LG디스플레이는 현지 합작법인에 추가 투자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중국 TCL 차이나스타옵토일렉트로닉스테크놀로지(CSOT) 지분 10.16%를 약 1조271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분 취득 목적을 '전략적 협업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는 계열사 간 지분 이전으로, 거래 예정일은 오는 12월이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 시점은 국내외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뒤 결정된다.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TV용 LCD 패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LCD 생산을 종료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LCD TV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중국 쑤저우 LCD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TCL CSOT 지분을 확보했다.

LG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 OLED 생산시설에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국유기업인 광저우개발구홀딩스그룹 측과 함께 광저우 OLED 합작법인에 총 10억 위안(약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지분율에 따라 7억 위안(약 1400억원), 중국 측이 3억 위안(약 600억원)을 부담한다.

투자금은 기존 광저우 공장 시설을 개조해 77·83·97·111인치 OLED 모듈 생산을 위한 후공정 설비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를 대형 OLED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광저우 공장의 월간 유리기판 투입능력은 9만1000장으로 전년 7만5000장보다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파주 대형 OLED 공장의 월간 유리기판 투입능력은 5만8000장에서 3만5000장으로 줄었다. 광저우 공장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동안 국내 생산시설은 축소된 셈이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현지 생산거점을 활용하면서 대형 OLED 사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4월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마무리했지만 OLED 합작법인은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OLED 시장에서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시작했고, 중국 BOE도 지난 6월 8.6세대 OLED 양산 출하식을 추진했다. TCL CSOT는 광저우에 8.6세대 잉크젯 OLED 생산라인을 구축 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패터닝 기술 '플립(FLiPP)' 개발에 성공하는 등 국내 업체들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OLED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LCD 패널 조달이나 현지 생산에서는 여전히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마다 사업 구조와 필요한 제품이 다른 만큼 기술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거래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온, ESS 공급 확대에 실적 반등 기대감

3분기 적자 전환에도 손실폭 축소
美 9GWh 규모 대형 공급계약 확보
내년부터 매출 반영·수익성 개선 기대

SK온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판매 부진 속에 3분기 다시 적자를 냈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확보한 ESS 수주 물량의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수익 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SK배터리아메리카 전경. /SK온

1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 3분기 80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던 고객사 보상금 등 일회성 수익이 빠진 데다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판매 물량까지 줄면서, 매출도 1조5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다만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손실 규모는 일회성 요인이 없던 1분기(3492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1248억원)보다도 443억원 개선됐다. 업계 안팎에서 예상한 1000억원대 후반 적자보다도 작은 규모다. 판매 부진 속에서도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이어온 효과가 손실 축소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K온은 상반기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체제를 종료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부담을 덜었다. 합작 정리 영향으로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12.2%로 3월 말(257.9%)보다 45.7%포인트 낮아졌다. 상반기 유형자산 취득에 쓴 현금도 9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여전히 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재무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ESS 사업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미국 플랫아이언과 맺은 1GWh 규모 공급 계약 물량이 첫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며 제주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에서 확보한 물량도 내년부터 매출에 더해질 전망이다.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지난 8월 미국 네오볼타 파워와 체결한 9GWh 규모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이다. 계약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급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뤄진다. 양사는 9GWh 규모의 추가 협력도 추진하기로 해 협력 규모가 18GWh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폭스바겐 골프 R, 12년 만에 국내 돌아온다

333마력 고성능 해치백 내년 출시
사륜구동·주행 제어 기술 적용

폭스바겐 골프 R이 333마력의 고성능 해치백으로 내년 국내 시장에 돌아온다. 2015년 이후 12년 만의 복귀로, 골프 특유의 실용성에 사륜구동과 주행 제어 기술을 더해 운전의 재미를 원하는 고객을 겨냥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7~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페 레이드에서 '골프 R 카페 오픈하우스'를 열고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국내 출시는 2027년으로, 2015년 7세대 모델 이후 약 12년 만이다.

현장에 전시된 골프 R은 익숙한 해치백 차체에 고성능 모델의 특징을 더했다. 전면에는 R 엠블럼과 대형 공기흡입구를, 후면에는 배기구 4개와 대형 스포일러를 적용했다. 실내는 스포츠 시트와 파란색 장식으로 꾸몄다. 전시차는 독일 본사에서 들여온 차량으로 국내 판매 사양은 달라질 수 있다.

신형은 8세대 골프 부분변경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글로벌 사양 기준 2.0 *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333마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초다.



폭스바겐 신형 골프 R. /폭스바겐

앞바퀴를 굴리는 골프 GTI와 달리 사륜구동을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좌우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해 코너링을 돕고,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을 조절한다. 골프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프 R의 역사는 2002년 등장한 골프 R32에서 시작됐다. 4세대 골프에 3.2 *l* V R6 엔진과 사륜구동을 결합한 모델이다.

/이승혁 기자 sh95@

HD현대로보틱스, AI로 로봇 프로그래밍 기간 63% 단축

팔란티어 AI 에이전트 활용 성과
업무 기간 21.5일서 7.9일로 줄여

HD현대로보틱스가 팔란티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로봇 프로그래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지컬 AI 솔루션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팔란티어의 '소버리니티 부트캠프'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성환 상무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양사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팔란티어 소버리니티 부트캠프는 기업의 데이터와 핵심 사업정보를 보호하면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7월 처음 개최된 이후 세 차례 행사에 글로벌 기관·기업 250여곳의 경영진 450여명이 참가했다.

안 상무는 기조연설에서 HD현대로보틱스의 피지컬 AI 적용 전략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팔란티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양사는 AI와 시뮬레이션, 현장 엔지니어의 판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로봇 프로그램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엔지니어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현장 엔지니어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로봇 프로그래밍과 설치·시운전 업무에서 나아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해결책을 구현하는 '현장 솔루션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 과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평균 업무 소요 기간을 21.5일에서 7.9일로 약 63% 단축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이러한 업무 개선을 통해 로봇 프로그래밍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 과제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추가 활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안 상무는 "피지컬 AI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한화오션, 10년 만에 잠수함 발사장치 국산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 성과

한화오션이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온 잠수함 무장 발사장치를 국산화하며 차세대 잠수함의 성능 향상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10년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잠수함 핵심 장비인 '워터램(Water Ram) 방식 수평발사장치'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수평발사장치는 잠수함 내부에서 어뢰 등 무장을 바다로 발사하는 장비다. 워터램 방식은 수압을 이용해 발사체를 밀어내는 기술로, 한화오션은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을 정밀하게 조절해 무장을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도 적용했다.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관 외부 문을 열 때 가해지는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한 충격에 견디는 내충격 성능도 갖췄다.

장비 구조를 단순화해 유지보수와 운용 편의성도 높였다. 다양한 잠수함에 맞춰 발사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발사력 해석 기술도 확보했다.

/유혜온 기자